

경제대통령2 “투자하기 좋은 나라”

- 주한독·불상공회의소 주최,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제 대화-
- 투자하기 좋은 나라, 신경제 10대 전략 발표 -
-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시리즈 일환-

이재명 후보는 3월 1일 (화) 여의도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리는 후보자 초청 경제 대화에서 <경제대통령 2 : 투자하기 좋은 나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통합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담은 <신경제 10대 전략>을 발표한다.

대통령선거 D-100 <경제대통령> 선언 이후, 지난 90여 일 동안 일관되고 충실하게 경제대통령 일정을 소화해 온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최종 슬로건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대통령의 핵심 의제로 △ 기업하기 좋은 나라, △ 투자하기 좋은 나라, △ 일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며, 지난 2월 14일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제대통령1 :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통해 <경제대통령 5대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대통령 5대 구상은 △대전환기 혁신 선도국가 △ 과감한 일자리 창출 △신바람 나는 규제개혁 △남부수도권 구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등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투자하기 좋은 나라’ 정책 발표를 통해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경제대통령’으로 대전환기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최고 핵심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 부흥은 물론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는 **선도국가형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외국인투자는 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사상 최대실적인 295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점증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며, 외투기업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기준 중 하나가 해당 국가 경제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인 만큼 이재명 후보는 경제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역량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경제 대화에는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박현남 회장(도이치뱅크 서울지점장),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LICON) 회장을 비롯해 로완 페츠(Rowan Petz) 주한호주상공회의소 대표와 란타 헤이키(Heikki Ranta) 주한 핀란드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 대사, 페터 빙클러(Peter Winkler) 주한 독일 경제총괄 부대사, 러셀 와일드(Russell Wild) 주한 호주 경제총괄 부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루이뷔통, SAP, ING, Airbus, Yuhan-Kimberly, 쿠광, DHL의 한국법인과 Scotiabank, Kairos Capital, UBAF Bank 등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알게마이네자이팅, 르 피가로 등 외신특파원을 포함, 약 100여 개 기업의 CEO 및 임원이 대거 참석해 이재명 후보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책과 한국 경제 관련 다양한 질의와 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1절을 맞아 103년 전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주권 독립을 외쳤던 대한민국이, 103년이 지난 오늘 외국인투자 기업 앞에서 세계 5대 강국을 내다보는 선도 국가를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끝>.